얼마나 더 울어야 목포의 눈물 환희의 눈물 될까

사라진 옛 자욱 부두의 새악씨
가물거리는 등대불의 눈물 이 밤도 항구의 술집이
나 홀로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사라진 문화자산이다

〈22〉 가수 이난영과 목포

이난영의 환희… 그리고 눈물

13세 1929년 엄마따라 제주서 식모 살때 집주인이 재능 발견 악극단 소개

16세 '태양극장' 입단 노래 시작 오케레코드 전속가수 계약

19세 1935년 문일석 가사에 손목인 곡 '목포의 눈물' 음반 5만장 '대히트'

21세 '오빠는 풍각쟁이야' 김해송과 결혼 6·25때 남편 행불…생계 책임져

⋮

100주년 생일(6월 6일) 맞춰 난영가요제 열고 일제 강점기 목포 문화전·생가터 잔치

올해 이난영 탄생 100주년 삶·음악 기리는 행사 다채

이난영(1916~1965)의 '목포의 눈물'은 언제 들어도 구슬프다. 올해로 탄생 80돌을 맞는 '목포의 눈물'이 목포만의 노래가 아닌 것은 남도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한다. 지난해 타계한 문병란 시인은 '목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항상 술을 마시고 싶고, 문득 휘파람을 불고 싶어, 실패한 첫사랑이 생각나는" 곳이라고.

목포는 항구(港口)이면서 예항(藝港)이다. 소설가 박화성과 천승세, 평론가 김현, 극작가 차범석이 목포 출신이다. 그러나 목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는 단연 이난영일 것이다. 목포와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매개로 윤회의 연을 맺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 대중가요 100년 역사에, 목포가 낳은 '가왕(歌王)'은 그렇게 실존으로 존재한다.

'목포의 눈물'이 탄생한 배경은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선일보가 신민요 노랫말을 공모했는데, 문일석이라는 무명 시인이 당선되었다. 당시 오케레코드의 사장이었던 이철은 이 노랫말에 단단히 필이 꽂혔다. 그는 작곡가 손목인의 곡을 입혀 이난영이 취입하도록 했고 '목포의 눈물'은 대히트를 쳤다. 음반은 5만 장(당시 가격 1원50전)이나 팔려나갔다. 이난영의 나이 열아홉 살 때였다.

이난영 특유의 비음과 애상의 창법은 남도인의 심성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에서 남도 판소리 가락에서 느끼는 한을 감지했다. 후일 이 노래는 김대중대통령의 애창곡으로뿐 아니라 호남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팀 해태 타이거즈(기아의 전신)의 응원가로도 알려지게 된다.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 중에는 1935년 초판을 비롯해 일본에서 발표한 1936년 판, 1957년 라디오 실황, 1961년 공연 실황 등 모두 8곡이 현존한다고 한다. 작곡자인 손목인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목포의 눈물이 우리 민족의 설움과 일제에 대한 '겨레의 분노'를 노래한 것이고, 이 노래가 유행하면서 경찰서에까지 끌려갔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래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목포의 눈물'은 2014년 '한국 대중가요 고전 33선' 전시에서도 '황성옛터' '타향살이'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세간의 평가대로 '목포의 노래'는 트로트의 전형으로 손색이 없다. 그 뿐인가. 2014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광복 70돌을 맞아 한국 대중음악사를 빛낸 '불멸의 가수 7인'에 이난영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남인수, 백년설, 현인, 배호, 고복수, 김정구와 함께.

이난영은 1916년 목포시 양동 42번지에서 태어났다. 양동 육거리에 위치한 생가터는 2003년 기념소공원으로 조성됐고, 이곳에 그녀의 흉상이 세워졌다. 일제 식민지시절 조선인들이 대체로 그렇듯 그녀의 가정 형편은 빈한했다.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제주도로 식모살이를 떠났다.

그녀는 목포 공립보통학교(현 목포 북교초등) 4학년을 중퇴하고 목포 면화공장에서 일을 한다. 이후 13세 무렵 어머니가 있는 제주도로 건너가 식모살이를 한다. 그 즈음 주인집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음악적 감성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극장을 운영하는 집주인은 그런 난영을 눈여겨보았고, 순회 악극단체가 공연을 오면 책임자에게 난영을 소개하곤 했다. 16세이던 1932년 그녀는 마침내 '태양극장'에 입단해 노래 공연을 선보인다.

난영은 지방 공연 순회를 통해 경험과 실력을 쌓게 된다. 1933년 오케레코드와 전속가수 계약을 맺었고, 1935년 '목포의 눈물'을 취입하기에 이른다. 이후 난영의 음악인생은 승승장구를 한다. 음악영화 '노래 조선'에 출연했으며, '봄의 환희' 발매를 계기로 일본에도 진출한다.

21세 되던 1937년 난영은 작곡가 김해송과 결혼한다. 평양숭실 전문 출신인 김해송은 코믹한 노래 '오빠는 풍각쟁이야' '모던 기생 점고', 재즈 '다방의 푸른 꿈' 등 다양한 장르의 곡 작곡과 편곡을 했던 음악인이다. 그러나 6·25때 김해송은 인민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이 된다. 졸지에 난영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거운 짐이 놓여지게 된다.

다행히 자녀들은 부모의 재능을 이어받아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미 8군 무대에 이어 미국 시장으로 진출 '김시스터즈' '김 보이즈'라는 이름으로 활약하며 제 몫을 톡톡히 해낸다. 모전여전, 모전자전, 부전자전, 부전여전이라는 말은 이들 음악 가족들을 두고 이르는 말일 것이다.

올해는 난영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목포시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가왕(歌王)의 삶과 음악을 기린다. 난영가요제를 당초 10월에서 이난영 탄생일인 6월 6일로 앞당기고, 관련 영상을 제작 상영한다. 기념사업회가 주축이 돼 '가수 이난영 전시회'를 주제로 유품 전시와 일제강점기 목포 문화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난영과 '목포의 눈물'을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난영 생가터 잔치 한마당, 유가족 '김시스터즈'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목포시는 "목포가 낳은 가수 이난영 여사의 뜻을 기리고 명맥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1억5000여 만원을 편성했다"며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 등과 행사 추진시기와 내용 등을 협의해 난영 기념행사를 축제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유달산 중턱에는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있다. 노래비는 산중턱, 먼 바다를 굽어보는 자리에 서 있다. 이곳에서는 노적봉뿐 아니라 저 멀리 영산강 하구언, 하당 신도심, 대불산단까지도 한눈에 들어온다. 바람에 실려 오는 가락에는 심금을 저미는 한이 서려있다. 산허리를 휘감아 흐르는 곡진한 노래는 북항을 넘어 먼 바다에까지 메아리친다.

유달산을 찬찬히 둘러보며 생각한다. '목포의 눈물'이 아니 '남도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뀔 날은 언제일까. 유무형의 소외와 배제가 여전히 횡행하는 시대다. 얼마나 더 속울음을 삼켜야 남도의 눈물이, 우리들의 눈물이 마를까. 바다 멀리 기다란 항적을 남기고 떠나는 이름 모를 배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까. 진정한 가왕이 그리운 시대에 유달산에서 그 답을 오래도록 헤아려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 광주일보 DB〉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있는 유달산에서바라본 삼학도 풍경.
▶목포시 양동 생가 터에 세워진 이난영 흉상.
▼이난영 추모 공연 당시 모습.